



15일 링·16일 도마 경기…신기술은 쓰지 않을 듯

‘광주의 아들’ 양학선(20·한체대)이 일본 도요다컵 국제초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도요다컵은 일본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유서 깊은 대회로 종목별 결승 개인전으로 치러진다.

양학선은 2010년 광자우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을 딴 직후 이 대회에 출전해 도마 5위에 올랐었다.

양학선은 성지혜(대구체고)와 함께 나섰던 10월 스위스컵 때와는 달리 흘로 출전해 링과 도마 두 종목에서 경기를 펼친다.

도착 후 2~3일간 현지적응 훈련을 한 뒤 15일에는 링 종목, 16일에는 도마 종목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양학선은 “올림픽 때 했던 것처럼 양(양 손으로) 도마를 정면으로 짚고 세바퀴를 도

는 기술)과 쓰카하라 트리플(양손으로 도마를 옆으로 짚고 세바퀴를 도는 기술)을 보여 주려 한다”며 “신기술은 이번에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번에 이 대회에 출전했을 때는 너무 긴장해 실수했었는데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무조건 1등을 하겠다는 마음 뿐”이라고 덧붙였다.

양학선은 함께 출국한 조성동 감독은 “이번 대회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치러진 역사 깊은 대회”라며 “(양)학선이처럼 세계 랭킹이 높은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조 감독은 “학선이가 컨디션을 잘 조절해 제 실력을 낸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올스타 팬 투표

오늘부터 KOVO 투표서

프로배구 올스타전에 출전할 포지션 별 남녀 최고 선수를 뽑는 올스타 팬 투표가 13일 시작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3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15일간 홈페이지(<http://www.kovo.co.kr>)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NH농협 2012-2013 프로배구 올스타전은 내년 1월13일 열린다. 시간과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팀은 지난 시즌 최종성적을 토대로 K-스타(1·3·5위), V-스타(2·4·6위)로 나뉜다. 이에 따라 남자부 K-스타는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레시안캐시로 구성된다. 대한항공, KEPICO, LIG손해보험은 V-스타를 이룬다.

여자부 K-스타는 KG인삼공사, 한국도로공사, 흥국생명으로 V-스타는 현

대건설, IBK기업은행, GS칼텍스로 편성된다.

한 팀은 12명의 선수로 이뤄진다.

KOVO는 인터넷 팬 투표로 팀당 7명 씩 28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5명 씩 총 20명은 전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뽑는다. 팬들은 공격수 3명, 센터 2명, 세터·리비에로 1명씩 팀별로 7명까지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불균형을 막기 위해 같은 팀 선수는 3명까지만 지명할 수 있다.

올스타전은 4세트 경기로 진행된다.

여자부 선수들이 1·3세트를 치르고, 남자 선수들은 2·4세트에 나선다.

팀별 총점으로 우승팀을 선정하고, 남자 최우수선수는 각각 상금 300만원을 받는다.

최고의 서브킹과 서브 여왕을 뽑는 서브 경연도 열린다. 가장 빠른 서브를 때린 남녀 선수는 각각 상금 100만원을 가져간다.

/연합뉴스

2015 광주U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UCC도 공모

2015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가 선수단 안내, 경기 진행, 통·번역, 의무지원 등 10개 분야 30개 직종에서 활동하게 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1997년7월3일 이전 출생자·2015년7월1일 기준)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 홈페이지(www.gwangju2015.kr)나 시·구 청민원실, 동주민센터, 시·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단계별로 실시되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최종 선발자는 공식 유니폼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 참여증서, 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받는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또 ‘창조의 빛! 미래의 빛! 2015 광주하게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알려라’를 주제로 대회 홍보 UCC를 공모한다.

응모 기간은 내년 1월9일까지로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네이버들의 페이스북 투표로 최종 12팀이 선발된다.

대상 1팀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돌아가며 금상 3팀과 장려상 8팀에게는 각각 50만원과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광주U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받아 이메일(event@gwangju2015.com)로 응모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테니스 올해 최고 선수

男 조코비치 女 서리나

국제테니스연맹(ITF)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ITF는 올해 주요 대회 성적 등으로 뽑는 ‘ITF 월드 챔피언’ 남녀 단식 부문 수상자로 조코비치와 서리나를 선정했다고 12일(한국시간) 밝혔다.

조코비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서리나는 통산 세 번째로 이 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연합뉴스



한국 골프를 대표하는 배상문, 양용은, 김경태(왼쪽부터)가 12일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비가원의 엠파이어 호텔 골프장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골프대항전인 로열토론토 대회 연습운드를 마치고 피팅을 외치고 있다. 아시아 대표 8명 중 이름을 옮긴 세 선수는 14일부터 시합 간이 곳에서 유럽 선수들과 샷 대결을 펼친다.

/연합뉴스

‘코리언 삼총사’ 유럽 격파 선봉 선다

양용은·김경태·배상문 아시아·유럽 골프대항전 출전

아시아와 유럽의 골프대항전인 2012 로열 토론토 대회에 출전한 ‘코리언 트리오’가 아시아 팀의 우승에 힘을 실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선수 중 ‘맏형’인 양용은(40·KB금융 그룹)은 12일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비가원의 엠파이어 호텔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후辈들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용은은 후배 배상문(26·캘러웨이), 김경태(26·신한금융그룹)와 함께 아시아 대표 선수 8명 중에 이름을 옮겼다.

6회째를 맞는 이 대회에서 아시아팀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우승한 적이 없어 올해 어느 때보다 정상 탈환의 꿈을 부풀리고 있다.

양용은은 지브 밀카 싱(41·인도)과 함께 아시아팀 선수 중에서는 가장 베테랑이기에 어깨를 무겁다.

2009년 PGA 챔피언십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메이저 골프대회를 제패한 선수답게 양용은은 브루나이에서도 줄곧 사인과 사진을 원하는 팬들에 둘러싸여 큰 인기를 누렸다.

그는 “브루나이에는 처음 왔는데 날씨가

무척 덥기는 하지만 대회 장소가 마음에 들어 전체적으로 좋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2년 연속 아시아 대표 선수로 이름을 옮린 김경태의 각오도 남다르다.

2010년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상금왕에 오른 뒤 지난해 대회에 출전한 김경태는 둘째 날 포볼 경기에서 승리했으나, 포섬과 싱글 매치에서는 승점을 따내지 못해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당시 아시아팀도 아시아팀 노승열(21·타이틀리스트) 등을 앞세워 둘째 날까지 6-2로 앞섰지만, 마지막 날 유럽팀에 우승으로 피를 내줬다.

김경태는 “지난해 역전패를 당하고 제 성적도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올해는 아시아팀이 우승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지난해 JGTO 상금왕을 차지하고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진출한 배상문은 로열토론토에 처음 출전한다.

배상문은 “한·일 국가대항전 외에 이런 큰 대회는 처음이다 더욱 신경 써서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일단 이곳의 분위기와 문화에

적응해야 할 것 같다”면서 “많은 선수와 더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재미있게 경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과 연습운드를 치른 선수들은 13일 프로암 대회 및 조주첨을 거쳐 14일부터 사흘간 포럼 및 포볼, 싱글 매치를 펼친다.

/연합뉴스

일본 여자 골프 투어

상금·대회 수 늘었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가 경기 불황 속에서도 내년 시즌 총상금액과 대회 수를 늘렸다.

JLPGA 투어는 2013년 시즌에는 총상금 31억1300만엔(약 409억원)을 걸고 36개 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회 수로는 올해보다 1개, 총상금에서는 1억7700만엔이 늘어났다.

2012년에는 한국선수가 35개 대회 중 16개 대회에서 우승하는 바람에 일본 내 골프 인기가 떨어졌다는 여론도 있었다.

하지만 고비아시 히로미 JLPGA 투어 회장은 고도통신과 인터뷰에서 “골프에 관심을 두는 젊은이들이 많아져 대회를 유치하려는 스폰서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외 및 섬은 계기가 불가합니다.(죽지만 가능)

12월 15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2월 15일(토) 장성 임암산 송남산행. 진월동 신지도원 07:20. 염주체육관주차장 07:30. 한국병원앞(7:40). 문화예술회관주차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 08: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투표

▲롯데마트월드컵점, 06:45 1시 청주차장건너편. 7:00 비엔날레주차장

*다음카페 날도산사 투표

▲광주금당산악회 12월 15일(토) 진도 여귀산과 통선산 출발장소 07:30 염주체육관(광주역, 비엔

▲광주진주봉도요산악회 12월 15일(토) 임실 옥정 호 물안개 길과 오봉산, 진월동 산진마트 07:00. 염주동 배네리아와 07:40. 상공화물점 07:45. 교원체육회관앞 07:50. 문예회관주차문 07:55. 그린장례식장 08:10 *다음카페 확인

▲011 627 2113, 010 5036 9001

▲광주희망토론토연합 12월 15일(토) 짚어난 팔봉산, 염주체육관 07:00. 광주 07:15. 비엔날레주차장 07:30

*다음카페 광주희망토론토연합 투표

▲광주토요산악회 12월 15일(토) 진도 여귀산과 여귀산 07:30. 염주체육관 08:00.

*다음카페 광주토요산악회 투표

▲전남산악회 12월 15일(토) 경남 사천 하늘만대학 07:30. 운진각사거리 07:35. 양동사 07:30. 운진각사 08:00. 두암동 흠풀스 08:10. 고성 *다음카페 전남산악회 투표

▲광주금당산악회 12월 15일(토) 진도 여귀산과 여귀산 07:30. 염주체육관 07:45. 문예회관 07:50. 문예회관 08:00. 두암동 흠풀스 08:10. 고성 *다음카페 전남금당산악회 투표

▲광주금당산악회 12월 15일(토) 진도 여귀산과 여귀산 07:30. 염주체육관 07:45. 문예회관 07:50. 문예회관 08:00. 두암동 흠풀스 08:10. 고성 *다음카페 전남금당산악회 투표

▲광주금당산악회 12월 15일(토) 진도 여귀산과 여귀산 07:30. 염주체육관 07:45. 문예회관 07:50. 문예회관 08:00. 두암동 흠풀스 08:10. 고성 *다음카페 전남금당산악회 투표

▲광주금당산악회 12월 15일(토) 진도 여귀산과 여귀산 07:30. 염주체육관 07:45. 문예회관 07:50. 문예회관 08:00. 두암동 흠풀스 08:10. 고성 *다음카페 전남금당산악회 투표

▲광주금당산악회 12월 15일(토) 진도 여귀산과 여귀산 07:30. 염주체육관 07:45. 문예회관 07:50. 문예회관 08:00. 두암동 흠풀스 08:10. 고성 *다음카페 전남금당산악회 투표

</div